

特許出願面에서 본 技術動向

農水 分野

元 惠 中
 <特許廳 農水産審査擔當官>

序 言

農水産部門의 技術은 人類의 發祥과 더불어 不斷히 發展하면서 가장 긴 歷史의 承繼分野이면서도 20世紀 오늘의 科學技術은 이 部門에 어느 程度의 關心을 던져주는지 의심을 가져보기도 한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 遺傳工學技術이 胎動하게 되면서 尖端技術로 일컬어지는 電子科學에 못지 않게 脚光을 받고 있는 分野가 바로 農水産分野이다.

다음에 統計나 圖表를 가지고 出願動向에 對해서 分析해 나가겠지만 다른 分野와 比較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農水産分野의 技術이야말로 近代化를 위해 迫車를 加해야 할 部門이라고 할 것이며, 또 政府나 企業에서도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할 部門이라고 생각된다. 人間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天惠的 資源을 빼놓고서는 첫째가 食糧資源일진대 앞으로의 人類의 生存繁榮을 繼續해나가기 위해서는 農水産分野의 技術開發에 注力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年度別 特許 및 實用新案出願動向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最近 3年間 特許 및 實用新案의 總出願件數는 48,839件인데 比하여 農水産分野의 出願은 3,760件으로서 그 比率이 不過 7.76%에 불과하다. 農水産分野의 研究開發이 極히 微弱하다는 것을 代辯해 주고

[表 1] 年度別 特許·實用新案出願 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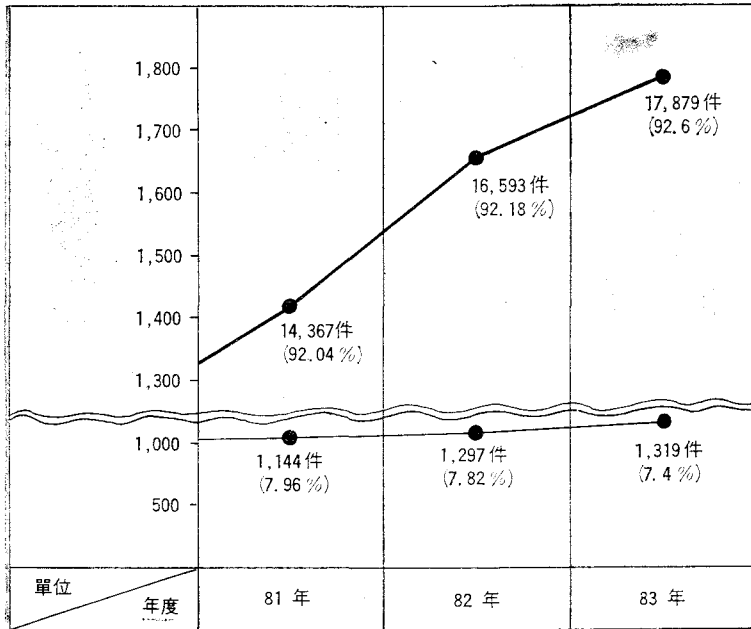
區分		年度別			計
		81	82	83	
全體出願	特許	5,303	5,924	6,394	17,621
	實用新案	9,064	10,669	11,485	31,218
	計	14,367	16,593	17,879	48,839
農水産分野	特許	297	340	376	1,013
	實用新案	847	957	943	2,747
	計	1,144	1,297	1,319	3,760
出願比(%)		3.96%	7.82%	7.4%	7.78%

있다. 이 表를 作成함에 있어 좀더 넓은 面에서 統計를 잡고져 하였으나 特許行政의 國際化추세에 따라 그동안 數次에 걸쳐 分類方法이 改正되고 또한 當廳 農水産審査擔當官室의 機構設置가 日淺하여 그 以前에는 本業務를 다른 部署에서 分散하여 管掌하고 있었으므로 그 實績值를 追跡하여 算出해 내기가 不可能하여 最近 3年間의 數值만을 가지고 統計를 잡을 수밖에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表 2>에서는 年間 總出願件數에 比하여 農水産分野의 出願率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形態로 伸張하고 있는지를 分析해 보고져 한다.

圖表 曲線이 가르키고 있는 것과 같이 全體總出願의 傾向은 急伸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農水産分野는 거의 起伏이 없는 水平率을 긋고 있으며 그 點有比率도 不過 7~8% 未滿의 位置밖에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2〉出願率의 成長傾向



農水産分野의 特許 出願의 技術水準

農水産分野는 農耕社會에 접어들면서부터 使用되고 있는 호미나 낫 등을 비롯하여 절구, 깻돌등에 이르기까지 人間生活에 가장 基礎的分野에서부터 出發하여 호미나 쟁기가 耕耘機로 낫이 薊取機로 그리고 못줄을 띠고 일일이 손으로 모를 내던 것이 移秧機등으로 發達하고 있는 現狀이다. 그러나 最近 遺傳工學에까지 科學技術이 發達하게 되므로 農水産分野야말로 가장 落後되고 있는 部面이 있는 一面 가장 앞서가는 分野이기도 한 것이다.

遺傳工學分野의 出願動向에 對하여는 別途의 項의 두어 簡略히 言及하겠으나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科學營農 또는 農業의 機械化등 多角의 營農法을 改良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大多數가 다른 分野에 比하여 앞서간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在來의 方法을 踏習해오는 慣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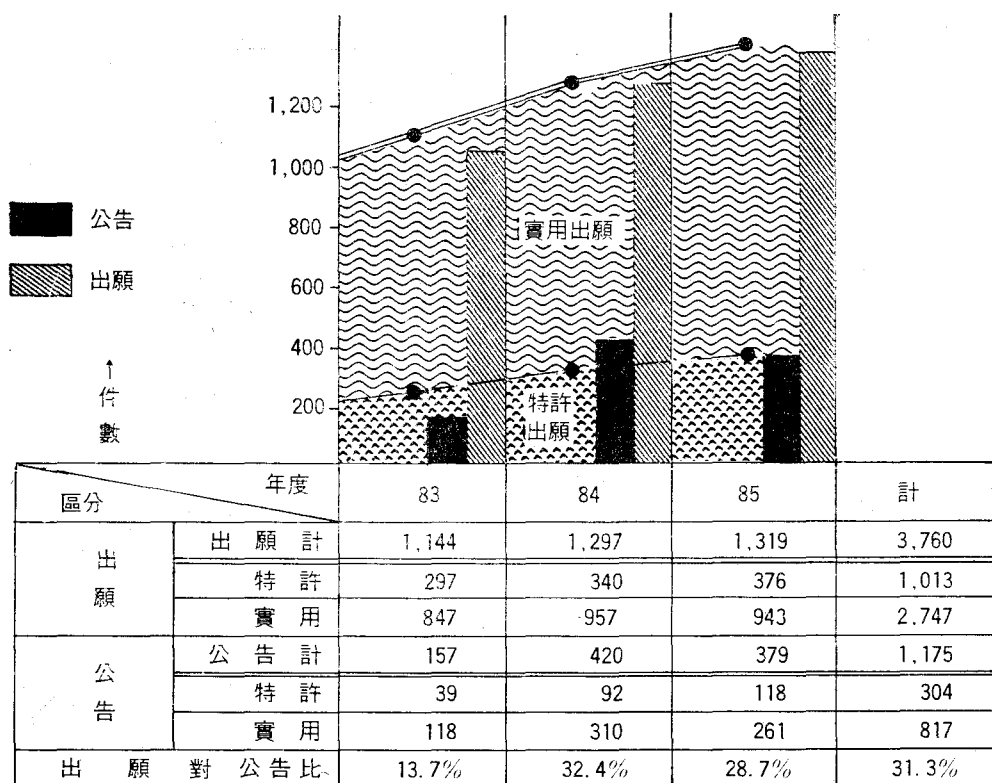
營農方法이 殘存하고 있는 實情으로서 그 原因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營農人口가 노령화되고 또한 科學的 技術을 基礎로 하지 못하는 在來의 農夫의 思考로서 營農에 臨하는 傾向이라는데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與件속에서 科學的인 高度의 發明이나 實用的인 考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期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歸着된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年度는 1,144件 出願中 不過 157件 밖에 公告되지 못하고 있다. 또 82年 83년에는 32.4%, 28.7% 등으로 上廻하므로 3年 平均 31.3% 程度 公告된 것은 出願內容에 있어 그 技術水準이 높은 편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며 다른 分野에 比하면 多少 낮은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分野別 出願動向

農水産部門을 몇가지의 分野로 大分하여 그 出願動向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表 3〉 出願對比 公告比率 分析表



〈表 4〉 分野別 分類內容 一覽

1	農業分野	農業, 林業 및 이에 關聯되는 機具, 機械, 파종, 시비, 수확, 농산물의 저장, 야채 화훼 植物 新種等
2	水産業分野	漁業, 養漁, 海漁, 漁礁 等
3	畜産業分野	動物의 飼育, 捕獲, 酪農製品 等
4	食品分野	베이킹, 肉處理, 家禽 또는 漁肉의 處理, 食品 또는 食料品 等
5	담배分野	담배, 喫煙具
6	其他	遺傳子工學, 穀粒의 前處理, 酒精, 糖 및 澱粉, 其他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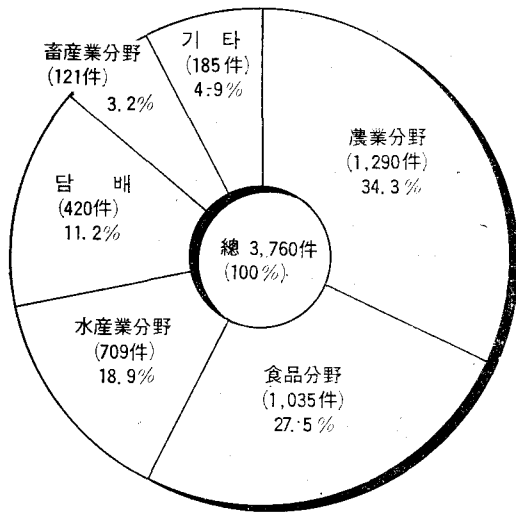
〈表 5〉 年度別 分野別 出願動向

年度別	分野別	農 業	水 産 業	畜 産	食 品	담 배	기 타	計
81		355(100)	284(100)	33(100)	301(100)	128(100)	43(100)	1,144(100)
82		442(125)	240(83.3)	44(133.3)	375(124.6)	144(112.5)	52(120.9)	1,297(113.4)
83		493(139)	185(65.1)	44(119.3)	359(119.3)	148(115.6)	90(209.3)	1,319(115.3)
計		1,290(132)	709(74.2)	121(133.3)	1,035(122)	420(114.1)	185(165)	3,760(114.4)

※ ()內는 81年을 100으로 보고 出願伸張率임.

〈表 4〉에 나타난 6個分野는 便宜上 分類로서 한다. 그 分類의 內容을 가지고 出願動向을 分析코자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年度를 100으

〈表 6〉 分野別 點有比



로 보아 農業分野와 畜産分野는 平均 130以上이고 食品分野가 122 以上 그리고 담배分野는 114의 伸張을 示顯하고 있으나 水産分野는 그 出願率이 大幅 減少되고 있는 現狀이다.

工業所有權의 關心度는 그 나라의 産業의 工業化水準에 比例하고 있는바 그러한 側面에서만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水産業은 앞날이 염려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表 5〉의 數値를 놓고 이를 다시 〈表 6〉과 같이 圖形化하여 보았을 때 各分野別로 그 點有率을 分析해 보면 農業分野에서 34.3%를 點有하고 있고 그 다음이 食品分野로서 2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食品工業分野가 比較的 研究開發을 活潑히 進行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이 水産業分野에서 18.9%를 示顯하고

있다. 이는 全體속에서 볼때 그리 큰 比重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좁은 農耕地에서만 食糧資源을 求하기 보다는 三面의 넓은 바다나 內陸의 山地에 더 큰 期待를 걸어야 한다고 볼때 水産業이나 畜産業 開發에 더 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을 염려하게 된다.

分野別 個人出願과 企業出願 傾向

지난 3年동안의 出願分을 分野別로 個人出願과 企業出願 傾向을 分析하면 다음 〈表 7〉와 같다.

이 表에서 特徵으로 나타나는 것은 企業出願이 個人出願보다 比較가 되지 않으리만치 低調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産業構造面에서 볼때 大部分의 경우 個人보다는 企業의 活動이 크게 앞지르고 있으나 唯獨 農水産分野의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個人出願이 越等하게 앞서고 있음이 特記할 수 있다고 하겠고 平均 3:7의 比率로 個人出願이 優勢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위에서 言及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企業은 農水産分野에 등한하고 있다는 것을 이 表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다.

本人이 알기에는 國內 有數한 農機械生産業體에서는 自體品目 開發보다는 外國의 技術導入이나 技術提携 등 形式으로 製品生産에만 注力하던 中 最近에 와서 技術導入期間이 滿了되기에 이르러 技術導入先에서 技術提供을 꺼려하는 態度를 보이므로 크게 困境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實例는 우리 모든 企業에 크게 敎訓이 되어야

〈表 7〉

分野別 企業 및 個人出願 動向

區分	分野別	農 業	水 産 業	畜 産 業	食 品 業	담 배	其 他	計
特許	企業出願	89	53	4	235	40	91	512
	個人出願	99	23	1	342	24	12	501
實用	企業出願	158	112	11	60	17	11	366
	個人出願	944	521	105	398	339	71	2,378
企業出願計(A)		247	165	15	295	57	102	881
個人出願計(B)		1,043	544	106	740	363	83	2,879
會 計		1,290	709	121	1,035	420	185	3,760
A : B		20 : 80	23 : 77	12 : 88	29 : 71	14 : 86	55 : 45	23 : 77

하겠다.

이 表에서 좀더 內容을 詳細히 分析해 보면 食品分野와 水産業分野에서 企業出願이 比較的 높은 數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農水産物을 主原料로 하는 生産企業의 活動이 比較的 높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畜産業分野는 아직까지 企業出願率이 極히 低調한 것을 보아 우리나라 畜産業을 擔當하는 企業에서는 外國에서 開發된 技術을 直導入하여 그대로 適用하고 있거나 아니면 在來의 前近代의 方法을 維持 傳承하고 있는 形便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內・外國人別 出願 動向

農水産分野는 內國人的 出願이 外國人的 出願보다 越等하게 많이 出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現狀은 一見 多幸스러운 일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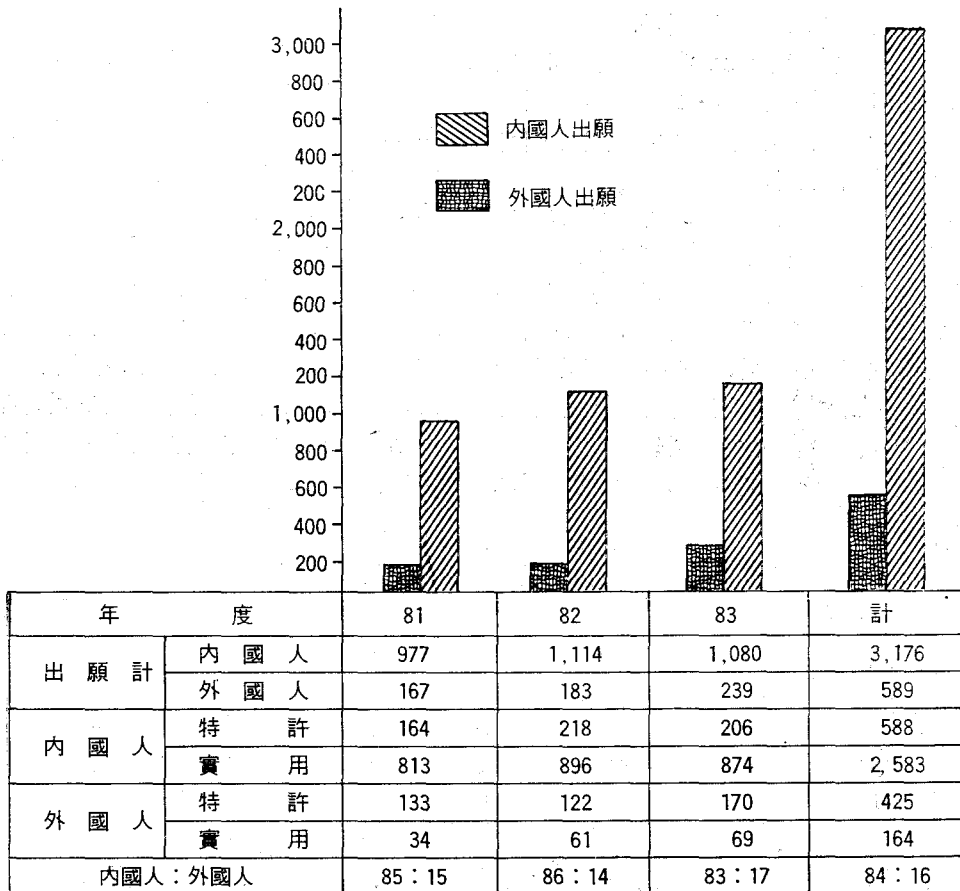
도 볼 수 있겠으나 工業所有權의 市場性 側面에서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國內市場은 外國人에게 그리 큰 매력거리가 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昨年度 特許統計年報에 나타난 數値에서 算出해 보면 內國人 出願이 80%이고 外國人 出願이 20% 程度로 나타나고 있지만 農水産分野만을 摘出하여 算出하였을때 內國인이 84%나 出願되고 있고 外國人은 16%밖에 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全體의 出願傾向과 比較하면 內國人的 出願率이 約 4% 程度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主要 國家別 出願 動向

地球上에는 現在 150餘個國이 存在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特許出願을 하고 있는

〈表 8〉 年度別, 內外國人別 出願動向



나라는 大略 15~6個國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工業所有權의 出願登錄을 活潑하게 交換하고 있는 나라는 이웃 日本國과 그리고 政治經濟的 面에서 깊은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美國等 몇몇個 國家 程度이라고 볼 수 있다. 餘他的 國家들은 極히 微微한 形使이다.

〈表 9〉에서 보면 農水産分野의 總出願 3,670件中 內國人 出願이 3,171件으로서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日本國이라고 하지만 不過 9.8% 美國이 3.6%이며 餘他 10餘國 國家에서 2.3%를 차지하는 程度로서 外國人 出願이라 하지만 極히 微微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日本과 美國에 편중되고 있는 實情이다.

〈表 9〉 主要國家別 出願 傾向

國家別	區分	出願計	比 率	特 許	實用新案
韓 國		3,171	84.3%	588	2,583
日 本		367	9.8%	211	156
美 國		135	3.6%	132	3
其 他		87	2.3%	82	5
計		3,760	100%	1,013	2,747

分野別 內外國人 出願動向

內國人과 外國人の 出願分布를 分野別로 分析하여 보면 內國人の 경우 農業分野가 35.9%를 차지하고 있는데 比하여 外國人은 25.8%로서 內國人 比率보다 낮아지고 있다. 餘他的 다른 分野도 大概 그러한 出願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食品分野와 其他에서 外國人出願比率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 2個分野는 工業化로 因한 製品生産과 遺傳工學出願이 포함되므로서 그 높아진 原因을 찾을 수 있다고 보겠다.

遺傳工學分野의 出願動向

우리나라의 遺傳工學分野는 極히 最近에 들어 알려지고 있는 尖端科學技術로서 우리나라에서도 各級 研究機關이나 學界, 業界 등에서 活潑히 研究開發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表 11〉에서 보면 1976년부터 이 分野의 出願이 始作되어 1984年 上半期 最近까지 出願된 總件數는 內外國人 合하여 116件에 達하고 있다.

〈表 10〉 分野別 內外國人 出願動向

('81~83年)

區分	分 野 別	農 業	水 産 業	畜 産	食 品	담 배	기 타	計
出 願 計		1,290	709	121	1,035	420	185	3,760
內 國 人 出 願		1,138 (35.9%)	594 (18.7%)	110 (3.5%)	861 (25.7%)	380 (12.0%)	88 (2.8%)	3,171 (100%)
外 國 人 出 願		152 (25.8%)	115 (19.5%)	11 (1.9%)	174 (29.5%)	40 (6.8%)	97 (16.5%)	589 (100%)

〈表 11〉 유전공학분야 연도별 국가별 출원 현황

(1984. 5. 31 현재)

국가별	년도별	'79	'80	'81	'82	'83	'84	계
계		7	6	22	23	30	28	116
한 國	국					2	1	3
미 國	국	6	4	13	4	13	15	55
일 本	본			1	9	7	7	24
서 독	독	1		4	4	1	1	11
스 위 스	스			1	3	1	1	6
네 델 란 드	드		2	2	2			6
영 國	국			1	1	1		3
덴 마 크	크					3		3
호 주	주					1	1	2
이 스 라 엘	엘					1	1	2
남프리카공화국	국						1	1

出願國도 比較的 多樣하여 美國, 日本, 西獨, 스위스, 네델란드, 英國 等等 11個國이며 이들 國家는 勿論 다른 나라에서도 앞으로 出願이 殺到하리라는 것을 豫測케 하고 있다.

이 表에서 나타난 數値를 보면 第一 活潑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나라는 역시 美國이며 이웃 日本國도 相當한 水準에서 技術開發이 進行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이 歐羅巴圈의 國家들로서 西獨, 스위스, 네델란드, 英國等 順이며 이들 나라의 大部分이 工業化面에서도 先進國이지만 農水産分野에서도 傳統의인 農業이나 畜産業을 繼承發展시켜오는 나라들이라는데 關心을 갖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좀더 敷衍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遺傳工學分野의 出願은 不過 3件으로서 83年度에 2件 84年 今年에 들어와서 1件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出願件數가 적다는 것은 그 分野의 技術을 完成한 것이 없다는 뜻이 되지만 앞으로 언제 이와같은 幼年期를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된다. 이것을 볼때 이 分野에 着手가 日淺하다는 理由 하나만으로는 說得力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본다.

機械, 電氣, 電子等 다른 分野에서도 先進技術을 따라잡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린 結果로서 最近에 와서는 많은 發展을 보고 있지만 워낙 이들 分野는 우리나라 歷史的 時差에 比例하여 技術的 격차도 컸는 탓으로 그들을 앞지르거나 어깨를 같이 한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라 判斷될때 遺傳工學分野야 말로 時間的 격차가 가장 좁은 거의 同時에 出發하는 現時點에서 勝負를 걸어 볼만한 分野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때 果敢한 投資와 勇氣를 살려 所謂先進國을 따라잡는 모험을 한다는 것이 전혀 虛構라고 할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食品加工 特許技術文獻 目錄의 整理 普及

人口의 暴發的인 膨脹은 食糧需要를 急増시키는데 反하여 世界의 氣象異變이나 自然生態의 不均衡은 食糧增産의 阻害要因으로서 人類生存의 威脅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食糧資源의 開發에 敏感하여 宿命的인 課題를 解決하는 遠大한 課業이 負荷되어 있는 한편 가깝게는 '86아세안게임이나 '88올림픽등을 겨냥한 우리의 固有食品의 國際化 및 先進外國食品의 우리나라 土着化事業이 火急한 課題로 登場하게 되므로 當廳에서는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대한 特許文獻을 活用하여 研究에 도움이 되도록 그 目錄을 整理하여 普及하는 作業을 끝냈다. “구슬도 꿰야만 쓸모가 있다”는 格言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文獻이 있다 하여도 到處에 散在해 있을때 實地 必要에 應하지 못한다면 아무 所用이 없음을 알고 當廳에서 保有하고 있는 特許技術文獻은 勿論 韓國産業經濟技術院 特許部에 所藏된 文獻을 總合한 14個分野에 걸친 近3만 件의 目錄을 單行本으로 綜合整理하여 當該業界는 勿論 學界, 研究機關 等に 普及하게 된 것은 時宜에 맞는 快事로 생각하며 關心있는 이의 적극 活用을 期待하는 바이다.

國民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食品工業水準이 높아지는 것은 自然現狀이라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食品工業界에서는 좀더 研究開發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는 召命意識이 發露될 때 이러한 技術文獻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도 새로 發生되는 特許文獻이나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다른 分野까지도 集大成하는 事業을 넓혀 나가야 하겠지만 이를 利用하는 側에서 有用하게 使用될 때에 그 成果를 測定하게 될 것이다. 東洋圈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日本國과 西洋圈에서는 美國, 프랑스, 西獨등 5個國의 特許文獻만을 整理하였는바 東洋圈에는 中國과 西洋圈에서 英國이 빠지게 된 것을 못내 아쉬운 일로서 中國의 경우는 特許文獻이 거의 없는 形便이며 英國은 美國과 類似하다는 見地에서 除外되었음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란다.

讀者의 理解를 도우기 위해 各分野別 分類內容을 紹介하면,

食料品加工 一般分野에는 食料品の 貯藏·保存·冷凍·冷蔵·解凍·乾燥·통조림·병조림·包裝·皮膜形成·燻煙·염장·調製·脫包·脫臭·洗淨·切斷·磨碎·混練·煮沸·蒸煮·焙燒·搾汁의 機械器具등 方法과 裝置等이 包含되고 있다.

穀類 및 豆類의 處理加工分野에는 洗穀·炊飯

·製麵·製餠·粒狀化·粉末化·gluten組織化에 관한 技術과 關聯한 膨化·煮穀·延展·抽出·煮熟·응고技術과 關聯한 方法 및 裝置이다.

菜蔬類 및 果實類의 處理加工分野에는 貯藏·保存·熟成·脫水·乾燥·冷凍·解凍·沈漬·통조림·병조림에 關한 技術과 脫皮·脫核·脫殼·脫包·顆粒分離·脫色등에 關聯한 方法 및 裝置이다.

海藻類의 處理加工分野에는 寒天·海苔·미역·다시마·퓌·파래·청각등의 處理加工 技術과 切削·分離·選別·抄製·乾燥·調味에 使用되는 機械器具等 裝置이다.

鳥獸肉 및 魚貝類의 處理加工分野에는 各種 鳥獸肉 및 魚貝肉 魚卵의 保存·貯藏·燻製·염장·乾製·練製·變色防止·粉製·屠殺·骨切·技毛·脫皮·背割·挽肉·Sausage 其他 魚卵製品 製造에 關한 機械 器具 裝置이다.

乳 處理加工分野에는 乳의 乾燥·濃縮·保存·粉末化·軟乳·凝固化 및 乳·代用品·蛋白質 採取等 乳製品加工方法에 關한 技術과 이에 關聯한 機械器具等 裝置이다.

卵 處理加工分野는 各種 鳥卵類의 殺菌·殼分離·組織分離·保存·乾燥·粉末化·凍結등 技術에 關한 機械器具等 裝置이다.

製菓分野에는 米菓·精菓·氷菓等 各種 菓子類·羊羹·油菓등의 製造方法과 반죽·延展·切

斷·成形·表面加工·燒成·凍結등 機械器具 및 裝置이다.

飲料 加工處理分野에는 咖啡·코코아·果汁各種 清涼飲料·乳酸飲料·營養飲料·保健飲料·調合飲料등의 加工方法 및 이들의 製造·分配·供給·混合·充填에 使用되는 機械器具等 裝置이다.

調味料 및 添加物 加工處理分野에는 이들 原料의 抽出·精製·天然調味料·合成調味料·香辛料·着色料·甘味料의 製造方法 및 裝置이다.

營養食品加工 處理分野에는 植物性·動物性·비타민등 營養劑 및 酵素營養劑·食用菌抽出物·其他 營養改善添加劑등의 製造技術이다.

醬油類 加工處理分野에는 各種醬油의 原料處理·醱酵·熟成·殺菌·防腐·脫水·固化·粉末化·半合成·醬油類製造技術 및 이에 關聯한 機械器具裝置이다.

食酢 加工處理分野에는 各種 食酢原料의 處理·種培·醱酵 및 醱酵液處理 粉末化에 關한 技術과 이에 關聯한 機械器具等 裝置이다.

製茶分野에는 茶葉의 採取·貯藏·抽出에 關한 技術·綠茶·紅茶 및 其 代用品의 加工·咖啡豆의 處理·抽出·集塊化등에 關聯한 機械器具 등 裝置등으로 分類되었다. 이 資料를 利用하려면 當廳 閱覽室이나 農漁村開發公社 食品研究所 그리고 各 大學 食品化學科에서 열람할 수 있을

〈表 12〉

食品加工技術 特許文獻 統計

No	分野別	國 別	韓 國	日 本	美 國	프 랑 스	西 獨
1	食 料 品 處 理 加 工 一 般		164	4,728	326	19	11
2	穀類 및 豆類 處理 加工		207	3,015	312	8	34
3	菜蔬類 및 果實類 處理 加工		58	2,026	224	7	4
4	海 藻 類 의 處 理 加 工		57	561	—	—	—
5	鳥獸肉 및 魚貝類 處理 加工		91	3,058	477	9	33
6	乳 處 理 加 工		26	826	227	22	19
7	卵 處 理 加 工		7	232	13	1	—
8	製 菓		123	2,796	242	12	46
9	飲 料 加 工 處 理		22	660	119	3	6
10	調味料 및 添加物 加工 處理		27	1,390	293	7	15
11	營 養 食 品 加 工 處 理		21	382	48	2	1
12	醬 油 類 加 工 處 理		30	568	—	—	—
13	食 酢 加 工 處 理		—	68	—	—	—
14	製 茶		26	463	—	—	—
	計		859	20,819	2,281	90	169

것으로 본다.

結 言

지금까지 여러 側面에서 農水産分野의 出願動向에 對하여 檢討한 結果 첫째, 農水産分野의 技術水準이 他分野에 比하여 높은 水準이라고는 볼수 없는바로서 이는 個人 出願이 絶對 多數를 차지하는 反面 企業出願은 低調하다는 것을 指摘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分野의 技術向上을 위해서는 零細한 個人 農民의 發明家 보다는 企業의 發明이 多數를 차지해야 한다.

둘째, 水産物과 畜産業分野에서 획기적으로 技術開發에 投資하므로 바다와 山地를 利用한 代替食糧資源 確保를 위한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셋째, 遺傳工學分野에서 先進國水準에 뒤져서 는 아니되겠다는 굳은 意志의 表現이 企業은 勿論 研究界나 學界에서 일어나야 한다.

네째,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겨냥한 食品開發을 火急히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 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의 만족스러운 成果를 期待하기 위하여는 官民·産學 모두의 協同에서만 이 可能하다는 것을 促求해 둔다.

案

'84전 우수발명품전시회

內

전시기간: 1984. 8. 24~9. 2(10일간)

장 소: 한국종합전시장(서울 강남구 삼성동 65)

주 최: 특 허 칭

주 관: 한국발명특허협회

전시분야: 기계, 전기전자, 화학, 섬유, 토건, 금속, 농수산, 잡화부문, 학생 발명코너, 해외전시수상코너, 첨단기술코너

勸하는 말씀

위 전시회는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된 發明意志의 具體的 表現場입니다. 科學技術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한번 직접 오셔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開放 전시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진흥부(557-1077/1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 에 서 뿌 린 정 직

사 회 에 서 꽃 핀 신 리